

디지털 세상에서도 아날로그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잔존'의 차원으로 볼 수 없다. 특히 2023년에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영국에서 30만장, 미국에서는 10만장이 넘는 아날로그 신문이 판매되는 등 아날로그 신문은 여전히 꾸준한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예전에는 '한국판 뉴욕타임스'로 불렸던 일간신문은 최근에는 '한국판 월리스'로 불리우고 있다. 이런 충돌을 반영하는 듯, 최근에는 '한국판 월리스'로 불리우고 있다.

빗 보위, 밥 딜런 등,

해서 천대받았던 다양한 아날로그 제품들이 시장에서 반격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 지극히 감성적인 사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편리성이나 효율성보다는 듣는 이의
력이 더욱 중요할 테고, 아날로그는 바로 그점을 충족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고 믿는

진공관 앰프는 최근에는
히 등유럽에 널리 퍼져

적지 않다. 오늘 소개하는 오디오 헝가리는 브랜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헝가리의 진공관 리에게는 주로 체코 쪽의 진공관 메이커들이 알려져 있는데, 헝가리의 오디오 시장은 체코와도 의외로 소개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오디오 헤드폰의 역사
부품을 생산하고 소
EAG(ElectroAcoustic

우리가 관심을 갖는 흄 오디오 메이커로의 전환은 2014년 결정적인 M&A로부터 비롯된다. BEAG가 젊은 니어들이 주도하던 가정용 오디오 메이커 - '오디오 헝가리'를 인수 합병한 것이다. 오디오 헝가리의 젊은 니어들은 BEAG 즉이 제공하는 음향 관련 기술 및 제조 경험, 측정 노하우 등의 인프라와 함께 대자본을 받게 되었고, 전세계 오디오 시장을 노크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갖게 되었다. 첫 작품은 2015년에 발표된 테레오 파워 앰프 퀄리톤(Qualiton) APX 200. 기존에 발표되었던 BEAG APX 100(프로용)의 모델명을 함으로써 전작에 대한 경의를 담고 있으며, 기존 제품과는 다른 독창적이고 참신한 회로로 전문가들 사이에 이슈가 되었다.

현재 오디오 헤드폰 – 캐리تون의 제품 라인업은 여섯 종류이다. 사실상의 데뷔작 APX200 파워 앰프는 BEAG 시절 APX100을 프로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하면서 모노블록을 스테레오 구성으로 바꾸고, 현대 피던스 스피커에의 대응력을 강화시킨 모델이다. 전형적인 빈티지 디자인, 출력관은 새시 속에 숨어 보이으며 전면 패널 중앙에 바이어스 미터를 달아 고전적인 멋을 가미시켰다. 출력관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6P45S를 사용하는데 EL509와 특성이 비슷한 5극관이라고 한다. 6P45S는 채널당 싱글 퓨시풀 구성 총 4개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채널당 100W라는 강력한 출력을 끌어 낸다.

주파수 특성은 최대 출력 및 3dB 밴드에서 15Hz~100kHz라고 하니 상당한 광대역 특성이라고 할 수 전고조파 왜울은 역시 최대 출력시 1%이고 신호대 잡음비는 101dB를 넘으니 스펙상으로는 무척 훌륭한 것이다. 언밸런스 입력 한조와 4옴 8옴에 해당하는 스피커 단자를 갖고 있는 심플한 단자들. 전면에 바이어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며, 이외에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서 소스 직결도 가능하다. 한편 보이지 않는 기능도 뛰어나서, 진공관 보호 회로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공관의 을 크게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슬로우 스타트 회로로 돌발 전류를 억제하여, 오전압 지연 회로를 장착하여 아노드에 급격한 전압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A close-up photograph of the interior of a silver-colored audio power amplifier. The case is open, revealing a complex assembly of electronic components. On the left, there are two black speaker terminals. The right side features several cylindrical components, likely capacitors or inductors, with red and blue wires. The central area contains various printed circuit boards (PCBs) and smaller components. A metal heat sink is visible on the right, with several thermal pads and a blue wire attached. The overall design is clean and professional.

MC 단자로 바꾸는 것은 네 개의 나사를 끌기만 하면 된다. MC 단자에는 승압 트랜스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디오 헤드폰에서는 컬리톤 MC라는 승압 트랜스도 생산하고 있다.

The image shows a compact, rectangular silver-colored audio interface. On the left side, there are two XLR female connectors labeled 'INPUT L' and 'R'.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3.5mm TRS male connector labeled 'OUTPUT', a 3.5mm TRS female connector labeled 'GND', and a small orange 3.5mm TRS connector. The top surface has a 'GND' label. The front panel features the brand name 'QUALITY' in a stylized font above 'AUDIO'. Below the connectors, the text 'MC STEP UP TRANSFORMER' is printed, along with a 'CE' mark and the website 'www.qualityaudio.it'. The device is mounted on a black base plate.

클리튼 MC는 1:18의 출선판비로 24dB의 개인을 얻는 슬립 트랜스다.

